

지역 소식통

고창군, 농업용 드론 이용
땅콩 병해충 방제 시연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지난 4일 농업 인과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최만영 연구관, 송득영 박사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읍 신원리 일대 땅콩 포장(3만9,600㎡)에서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시연행사를 개최했다.

농업용 드론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기계를 이용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정밀 농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경사진 포장이나 적은 면적의 재배 작물도 적기에 방제가 가능해 농약 살포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살포량 절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국립식량과학원 송득영 박사는 "땅콩은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3번의 체계적인 병해충 방제를 해야 하나 고령의 농업인의 경우 무더위 속에 방제 작업이 어려워 방제시기를 놓쳐 병의 확산과 수확량이 있다"며 "농업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드론 등을 이용한 첨단 농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의도서관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정읍 시립의도서관이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으로 어린이 인권도서를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놀이', '돌'이라는 타이틀로 마련한 전시회다.

인권도서를 통해 어린이들이 인권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전국 10개 도서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사무소 4곳에서 연달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읍시립의도서관에서는 현재 170여권의 도서를 전시하고 있다.

부대행사로 오는 19일 그림책으로 만나는 인권 이야기, 다양한 인권 관련 도서, 간단한 체험행사, 그리고 꿈나무 인형극단의 인권 관련 인형극이 공연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인권의 이해, 평화,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비롯 함께 사는 세상 등을 주제로 한 그림책과 동화를 소개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공모사업 역대 최다

3년 연속 국가예산 4000억원 달성... 눈부신 성과 창출

부안군이 민선 6기 들어 행정수요자 중심의 탁월한 군정기회 능력을 발휘해 역대 최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고 있다.

3년 연속 국가예산 4000억원 달성과 지방재정 신속집행 4년 연속 우수, 맞춤형 규제개혁을 통한 꿈 소다용도부지 매각활성화 등 부안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집중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오복 오감정책과 소통·공감·동행행정, 서비스·마인드·창조행정의 행정 3원칙 등을 통한 군민동행 시책도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면서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선정 등 주민중심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부안군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지난해 말까지 총 13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87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작소전정비사업 200억



김종규 군수

원(국비 100억원) 등 45건에 국비 320억원이 선정됐다.

주요 공모사업별로는 위도 낚시관광형 다기능 어항개발 284억원(국비 200억원), 격포 미항조성 프로젝트 145억원(국비 100억원), 부안도시침수예방 하수도사업 384억원(국비 269억원), 부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68억원(국비 257억원), 공공살버주택 조성 111억원(국비 100억원) 등이다.

이 성과는 민선 5기까지 공모사업 선정실적이 매년 30~50건 안팎에 국비 300~400여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역대 최다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4004억 원, 2015년 4013억 원, 2016년 4105억 원 등 국가예산 3년 연속 4000억 원 시대를 달성하고 예산 5000억 원 시대를 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군정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창출했다.

또 연도별 부채 감축계획을 마련해 지난해 말까지 부채를 162억 원으로 줄였으며 올해 말 44억 원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 상반기에는 부채 ZERO화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안=이옥수기자

민선 6기 부안군이 중점 추진한 군민 동행 시책들도 하나씩 결실을 보고 부안군민 100인 토론회를 지난해 4회(여성·청년·귀농귀촌인·모든군민) 개최해 군민들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 및 정책에 기여했으며 밤마실 아한 구경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부안읍 배 관광상품화를 꾀해 번산·진서·출포 등 부안 해안지역으로 몰리는 관광객을 부안읍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2015년 지방규제지수 전 분야 'A등급' 달성 등 규제완화를 통한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꿈 소다용도부지 매각활성화 등 지역발전의 물꼬를 터 민선 6기 이후 올 상반기까지 총 86건의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24억 4400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부안군 김영섭 기획감사실장은 "민선 6기 부안 군정의 핵심을 바로 행정수요자인 군민"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시행해 주민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져 복거부안 부대 민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동학농민혁명 유적지탐방·교육

문화·역사·자연·관광자원 이해·역량 강화

고창군이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 4일 고창군 관광의 최일선에서 관광객들에게 고창의 문화·역사·자연·축제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문화관광해설사 40여명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탐방과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이날 고창군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동학포고문, 사발봉문, 주요알지 등 이론교육과 더불어 고창의 동학농민혁명기포지, 순화중도소,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등의 유적지 탐방에 참여했다.

이날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부터 현재까지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 참여해 왔고 현재도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 진윤식 연구소장이 유적지 탐방 및 이론 교육을 실시했다.

이론 교육으로는 동학포고문, 전봉준 장군 생애,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일지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의 흐름을

교육함과 이에 나아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추진 경과 등에 대해 다루고 현장 교육으로는 무장포고문을 선포한 무장 동학농민혁명기포지와 순화중도소 및 비결을 깨내 새로운 세상을 실현하고자 동학농민혁명의 태풍을 꾸게 한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을 탐방했다.

참여한 해설사들은 "고창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머리로 익히고 가슴으로 느끼며 깊이 있는 지식을 얻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의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 뿐만 아니라 고창의 다양한 이야기와 관광자원들을 보다 전문적이고 알기 쉽게 알리면서 고창군의 위상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신한 해설시스템을 찾아 고창만의 특색 있는 해설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시간 1시간 앞당겨 공급 시행

다음달까지 매주 화·수요일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장의 운영시간을 1시간 앞당겨 공급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유용미생물 공급은 5종 500톤을 목표로 복합군 EM, 단일균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

균 효모균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매주 신선하고 활성화된 유용미생물을 배양해 화, 수요일 공급하고 있으나 여름철 농업인들의 작업시간이 아침 일찍 일파가 시작되는 것을 배려해 미생물 공급을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매주 공급일인 화, 수요일에는 1시간 앞당겨 오전 8시부터 공급기로 했다.

현재 유용미생물 배양장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예산을 투입해 새롭게 신축해 자동화된 시설로 공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500톤 목표에 348톤을 생산 공급 목표대비 69%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올 연말까지 500톤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지역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립중앙도서관, '다문화 가정 동화구연지도사 자격증 과정' 이주여성 13명, 동화구연지도사 3급 자격증 취득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 다문화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용 위한 동화구연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 성과를 거뒀다.

중앙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서비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아 동화구연 자격증 반을 운영했다.

중앙도서관은 3월부터 7월까지 40시간에 걸친 강의 등을 거쳐 모두 13명

의 이주여성들이 동화구연지도사 3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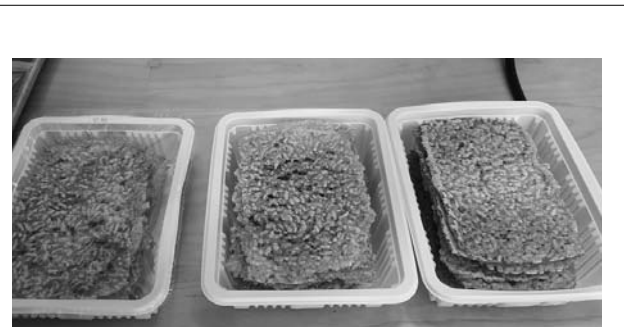
이번 프로그램은 중앙도서관이 기획하고, 정읍시립문화가정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다문화작은도서관에서 실제 운영했다.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은 필리핀과 베트남, 중국, 일본 등 이주여성들이다. 이들 여성들은 1주, 3시간씩 동화구연의 개념과 아동문화와 국어에 대한 이

해, 한국어 회화론 등을 이수했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이번에 자격증을 취득한 이주 여성들이 다문화 동화구연가로서 도서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도서관은 "앞으로도 다문화 인구 증가에 따른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주여성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뽕누룽지 개발

부안군(군수 김종규)이 히트상품으로 개발한 뽕 비빔밥에 이어 현미와 뽕잎가루를 이용한 뽕 누룽지가 개발된다.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뽕잎에는 칼슘과 철분을 비롯한 50여 종 이상의 미네랄이 풍부하며 항산화효과에 탁월한 폴리페놀도 함유돼 있어 노화를 방지하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당뇨병을 완화하고 혈관건강에도 좋아 혈 관성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며 체지방 축적 억제효과도 있어 비만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살소해염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대에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몸에 좋은 쌀 소비량을 늘릴 수 있어 부안군 쌀 농가소득 향상과 오디 뽕 재배농가가 서로 상생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뽕 누룽지는 계화면 양지마을과 부안지역사활센터를 통해 연구·개발해 상품으로 출시할 것"이라며 "뽕 비빔밥에 이어 부안군의 새로운 특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잎이 곱게 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가 익어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94-8990
www.gangsanwine.com